



안녕하세요. 배은정 수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가족은 카톨릭 종교를 고등학교 1학년때 사촌오빠 결혼식을 성당에서 했을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 4학년 초 즈음에 우연히 진료차 갔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부터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졸업식 다음날 저는 한달 동안 꽃동네에 봉사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마음 안에서 무작정 어디든지 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 불러고 무척이나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곳에서 한 달 동안 봉사하면서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도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착각에 빠저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문흥동 성당에 입교했습니다. 문흥동 성당

수녀님들이 우리 씨튼 수녀님들이었지요. 보좌 신부님과 이진영 수녀님에게 예비자 교리를 받고 1997년 4월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회생활은 두 곳의 사회복지관 기관에서 그룹홈 교사를 하다가 2003년도에 우리 수녀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입회 한 후에 어머님이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막내 제부를 제외한 두 여동생 가족들 모두 세례를 받았고 조카 한명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와 오빠가족은 신자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모든 가족이 함께 미사드릴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도직으로 주로 본당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였고 본원에서 관리 사도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포 연동 본당에서 주일학교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10월 한 달 동안 김정화 수녀와 함께 종신준비 기간에 첫 번째로 미국 모원방문과 마더 씨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까리따스 크리스티 수녀님들의 환대와 수녀님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신앙의 삶을 통해 마더 씨튼의 딸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매순간 깨닫게 해주는 값진 소명의 기억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 입니다. 2015년 10월 1일 수술하고 3주후에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의 치료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수녀님들의 기도와 보살핌은 물론이거니와 멀리서 미국 관구 이사회수녀님들께서는 격려와 위로의 카드를 보내주셨고 저의 기도 파트너인 팻 수녀님은 희망과 용기를 돌우는 카드를 한국에 오신 수녀님 편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셨고 메일로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원 방문할 때 생활했던 도란홀의 공동체 수녀님들께서도 그곳의 게시판에 저의 상황을 알리고 많은 수녀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팻 수녀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 안에 뜨거운 감동과 가장 힘든 순간에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성소도 굳건해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부터 마음 한 켠에 팻 수녀님을 한번 뵈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는데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고 놀라웠습니다. 2017년 9월 중반부터 3개월 동안 관구 간 교류로 본원에 오셨을 때 3차례 보았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서로 만났고 제 건강 상태도 물어보시고 우리는 '영혼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꼭 안아 주셨습니다. 주위 수녀님들은 우리들의 관계를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수녀님들은 모두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기도 파트너인 팻 수녀님을 통해 우리에게 향한 미국 수녀님들의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관구의 수녀님들의 기도와 보살핌으로 무사히 치료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 전반기에는 본원 전례를 도왔으며, 하반기에 본당으로 파견 받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관구의 모든 수녀님들과 저를 교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Hello, Sisters! I'm Sister Bae, Eun Jeong. My entire family came to know the Catholic faith for the first time when we went to our cousin's wedding. I was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Then I had another opportunity to learn a little bit about Catholicism from a doctor whom I met at a hospital. It was the beginning of the fourth year of college. The day after college graduation, I went to the Kkottongnae (note: Kkottongnae, which means a 'flower village' in Korean. It is a general social welfare facility) to do volunteer work for the isolated people suffering in poverty and distress. At that time, the only thought in my mind was to go somewhere to help and serve people. I remember trying hard to get rid of that thought. It was a turning point in my life as I stayed there for a month and experienced a completely different life. Seeing the religious who left everything to serve the vulnerable was inspiring to me. I had fallen into the illusion that religious lived in another world, seeing them with the poor but with endless laughter.

Right after coming home I joined Munheung-dong Catholic Church where our Sisters are working, and began to prepare to receive the Sacrament of Baptism. I took Catechism class from Sr. Lee, Jin Young and the assistant pastor. Finally I was baptized on Easter in 1997. Before entering our community in 2003, I worked as a group home teacher at two social welfare centers. Except my father, older brother and my youngest brother-in-law, all of my family members were baptized. To see one of my nephews serving as an altar boy is a great joy to me. I pray and hope that all of my family will become Catholics and celebrate Mass together some day.

Concerning my ministries, I worked for the Sunday School children in several parishes. I am now in charge of the Sunday School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Mokpo Yeon-dong parish. For final vows preparation, I spent a month in the United States in October 2013. With Sr. Kim, Jong Hwa I visited our Mother House and made a pilgrimage to follow Mother Seton's footsteps. I still keep it as a special memory in my life, always reminding me of the call as a daughter of Mother Seton. Our elderly sisters at the Mother House were so hospitable to us and shared their love and faith with us.

When I was happier than ever, a great trial came to me. I was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I had surgery on October 1, 2015, then received chemotherapy and radiation therapy three weeks later. I spent six months in treatment and realized that I was truly loved by God. The provincial councilors of the US province sent me a card of encouragement and comfort. I received lots of prayers and care from the sisters of the Korean province.

Sr. Pat Wilson, my prayer partner, sent me cards of hope and courage whenever any sisters came to Korea or by mail. Through Sr. Pat I also came to know that the sisters at Doran Hall where I stayed during my visit to Greensburg, prayed for me. They were informed of my situation by notices on the bulletin board. Knowing that, I was really consoled and began to have courage to struggle with my illness in the toughest moments. I even felt my vocation became stronger.

It was a great surprise to hear that Sr. Pat was coming to Korea. I was happy to see her. We met three times at the Provincial House during her three month stay in 2017. We had a good time talking about my health and shared stories. She hugged me as she told me that we are soul friends. Many Sisters envied our relationship. Though my English was not perfect we could communicate thoughts and hearts to each other without any difficulty. I also could feel the love and warm hearts of our American sisters through Sr. Pat.

Owing to the prayers and care of the sisters in USA and Korea, I could regain my strength. And I was missioned to help the liturgy at the Provincial House in the first semester, now I am working as a parish sister.

I thank all the sisters of the two provinces and God who called me as a child of the Church.

